

노인복지 확대 행정력 집중

남원시, 올해 관련예산 649억9200만원 편성

남원시가 올해 '튼튼한 노인복지 행복동체 남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노인복지예산 649억9,200만원을 편성해 복지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은 남원시 전체 예산의 10.9%로 지난해 보다 13.2%가 늘어난 예산이다.

남원시는 먼저, 1만8천여명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최대 20만6천500원)을 지급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2001명(예산 54억3,200만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기관, 시니어클럽 김부각사업단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호평을 받고 있는 두레사랑방도 확대 운영한다.

동절기 4개월 동안(1~3월, 12월) 운

영하는 두레사랑방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보다 8곳이 늘어난 85개소의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넘어선 남원시는 노인생활시설(13곳), 재가노인복지시설(6곳), 노인주거복지시설(1곳)에 690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장인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보다 2곳 늘어난 490곳에 18억5,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로당 신축과 기능보강사업(13억 8,400만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8곳에 4억원)도 추진한다.

전국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명품노인복지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25개 영역, 52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청춘을 돌려준다.

홀로노인들의 안전과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독거노인 1,500명을 선정하여 매주 1회 방문, 2회 전화로 인부확인하고 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혈압기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건강 확인까지 활동범위를 넓힌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등급의 A, B 판정자 330여명에게는 가사·생활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독거노인 282명에게는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을 펼쳐 건강과 영양을 챙기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순화원과 순화당 보수도 마쳤다. 남원 순화원 인접부지에 친환경적인 공설 자연장지를 마련해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새단장 끝낸 빈집이 반값

임실군, 5년간 절반가격 임대주택 제공사업 추진

임실군이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변시설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촌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1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리모델링 후 소유자는 입주자에게 5년간 주변시설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면 된다.

다만, 자부담이 50% 이상일 경우 임대기간을 4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기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가족이 많은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재활용하고, 귀농귀촌인 등의 안정적 정착 등을 통해 농촌 활성화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대희망자는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임실군청 건축팀(640-2298)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예산 조기집행 추진

내달 말까지 합동설계반 운영

임실군이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 숙원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자체 합동 설계 다량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설계반은 건설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군, 읍면 시설직 공무원 37명 20명으로 구성된다.

군은 이번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용배수조정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총 296건 47억5000만원에 대한 현황 측량 및 설계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초에 일제 착수해 농번기 및 우기전인 6월까지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하여 편리한 영농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미 군은 지난 해 말 합동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설계에 따른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사전 교육을 통해 각 사업장 측량 및 설계시 반드시 마을회의를 거쳐 마을이장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군이 올해 훈몽재에 1억5000만원을 투입,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훈몽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의 모습.

훈몽재 '유학교육의 산실' 우뚝

순창군 시설보강·교육사업 확대에 1억5000만원 투입

순창군 훈몽재가 새롭게 단장하고 조선 유학교육의 산실로 거듭난다.

군은 올해 1억 5천만원의 투자로 2009년 중건한 훈몽재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훈몽재는 강학당인 훈몽재, 교육관인 자연당과 양정관, 삼연정, 양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올해 훈몽재가 고지대인 쌍치면 둔전리에 소재해 있어 기후가 추운 점을 감안해 유학교육생들이 편안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단열재 보강과 냉난방기 설치, 장판 교체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보강 사업은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들이 유학교육에 입교하는 여름방학 전에 사업을 끝내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훈몽재 운영프로그램도 강화된

다. 군은 올해 훈몽재에서 한학,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유학전문교육반, 방학예절 교육반, 부모님과 함께하는 1박 2일코스 단기체험교육반, 부녀자 교육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학교와 기관 단체를 찾아가 인성, 예절, 사자소학을 가르치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훈몽재선비의길이 올해 본격 운영돼 도시에서 순창을 찾는 교육생들이 유학교육은 물론 선비의 길을 체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훈몽재 시설을 새롭게 보강하고 유학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면서 "전국에서 유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신청업체·기관 모집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노동자 및 근로자 등 직장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행복을 부르는 직장인 건강스펙'이 2월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우리시에 위치해 있는 20인 이상 업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매년운영하고 있다. 작년 찾아가는 직장인 프로그램은 총 1,368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31일까지 신청업체 및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행복을 부르는 직장인 건강스펙 프로그램은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보건소에서 매주 1회씩 총 4회 지정으로 찾아가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교육, 근력강화 및 비만에 방을 위한 운동, 금연클리닉 및 절주상담 등 다양한 건강분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방문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상세주소 부여 받으세요"

남원시는 그간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동·층·호)를 등록할 수 없어서 불편을 생활 불편은 물론 긴급상황 시 응급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어 주소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상세주소 부여대상 100건 중 부여 목표율 8% 대비 21%에 해당하는 상세주소부여 실적을 올려 업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었으며 기존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지만,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는 신청이 없어도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세주소 부여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게 되어 시민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목욕탕 효자, 등밀이 기계를 아시나요?"

순창군 작은목욕탕 9대 설치

순창군이 9개면에서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에 등밀이 기계 9대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알뜰살뜰 돌보는 세심한 행정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쌍치, 인계, 팔덕, 북흥에서 운영중인 작은목욕탕에 등밀이기계 각 1대씩 총 9대를 설치완료했다. 농촌의 고령화로 작은목욕탕 이용객들이 고령층이 많아 등을 밀기가 곤란하리라 판단한 군 측의 세심한 조치다.

동계면 양모(79) 할머니는 "겨울이 되면서 집에서 가깝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소재지 작은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늘상 등을 밀기가 곤란했다"면서 "등밀이 기계가 설치



돼 앞으로 더 작은목욕탕 이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군은 올해 완료되는 구립면 작은목욕탕에도 안료와 동시에 등밀이 기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등밀이기계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